

“도심 속 탱크 · 분노한 시민들 · 오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잔혹함과 시민들의 분노, 항쟁이 끝난 뒤 광주 모습이 담긴 영상이 38년만인 9월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 처음 공개됐다. 시민들이 트럭에 '시민이어 일어서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두르고 시위를 하고 있다.

5·18 참상 담긴 흑백영상 38년만에 첫 공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잔혹함을 대변하는 도심을 경계하는 탱크와 치료받는 시민, 유족의 오열 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10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3에서는 5·18기록관이 수집한 항쟁 관련 영상물이 상영됐다.

72분 분량의 영상에는 그날의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군부의 잔혹함을 대변하는 총칼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저항하는 시민들의 함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흑백으로 상영된 영상만으로도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총 3개로 나뉜 영상의 첫번째 필름에는 1980년 5월20일부터 27일까지 항쟁이 가장 치열했던 옛 전남도청(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급남으로 집결한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보여졌다. 한 시민이 단상에 올라 구호를 선창하면 시민들은 따라 외쳤다.

이어 계엄군들의 진입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적십자병원의 영안실에 안치된 시신들을 통해 그들의 잔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신 위에는 피가 스며든 태극기가 덮여 있었다. 영안실 바닥 곳곳의 피자국도 흑백영상을 통해 선명하게 확인이 가능했다.

또 살짝 비친 시신의 얼굴에서는 핏자국이 선명해 그날의 참혹함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구타와 총상 등으로 부상을 입은 시민들이 병원에 실려오는 모습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피를 구한다'는 시민들의 외침도 들리는 듯 했다.

트럭과 버스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은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앞 쉼터에 집결해 '민주주의를 영원했다'고 외쳤다.

5월28일부터 6월1일까지 광주의 모습이 담겨있는 두번째·세번째 영상에는 항쟁이 끝난 뒤의 광주의 모습이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도지사 기자단 브리핑과 군 장성들이 웃으며 광주를 둘러보는 장면도 삽입돼 있어 분노를 자아냈다.



한 가족이 관속에 잠들어 있는 희생자를 확인하고 있다.



계엄군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광주 도심에 진입하고 있다.



계엄군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5·18 유족들 “영상이 생생해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아 무서웠어요”

“믿기지 않아...5·18부정하는 사람들, 영상 봤으면”

“5·18 그 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탱크·계엄군·쓰러진 시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영상을 본 5·18 유족들은 오열했다.

5·18민주화운동 38주기를 앞둔 9일 오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에서 항쟁의 모습이 담긴 72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계엄군과 대치하는 시민군과 도심을 점령한 탱크, 총칼에 의해 희생된 시신들이 안치돼 있는 영안실, 망월묘역에서 합동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6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가득 채운 5·18 유족과 관계자, 시민들은 영상을 보며 때론 흐느끼며, 분통을 터뜨리며 관람했다.

특히 유족들은 당시의 참혹했던

현장에 다시 선 듯 두눈을 감기도 했고 먼저간 자녀가 떠오르는 듯 하늘을 쳐다보며 흐르는 눈물을 소리 없이 닦았다.

임금자(77)씨는 “그 때 대인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계엄군들이 쳐들어와 끈봉으로 때렸던 때 ‘알 가계 청년은 총에 맞아 죽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니까 다시 그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살이 떨렸던 때 ‘38년동안 숨겨져 있는 그날의 진실이 빨리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편을 잃은 박형순(69)씨는 “영상 중에 계엄군이 남자를 끌고가는 장면이 나와 후식 남편 일 것 같아 유심히 살펴봤다”며 “우리 남편도 계엄군에 끌려가 초주검이 되서 돌아왔다.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신서영(24)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다”며 “영화 속 장면과 실제 상황이 똑같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5·18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신기자들이 시민군의 인내를 받으며 취재를 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